

# 함께

봄 2013

·특집·

내가 크리스찬이 된  
사연을 소개합니다





## COVER STORY

남쪽부터 봄이 올라옵니다.  
봄꽃에도 순서가 있어서 하나, 둘 씩  
피어납니다.

나무와 풀, 바람만 봄을 알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의 몸짓과 말투, 눈빛  
도 봄을 알립니다.

겨우내 부쩍 자라난 몸매도  
눈에 뜨입니다. 추위를 피해  
방안에서 땀똥던 아이들이 놀이터로  
나왔습니다.

기다란 원통에서 함께 부대끼는  
'큰 숲 어린이집' 아이들,

봄은 미래이며 희망인 것이  
분명합니다.

## 2013 봄 Spring

- 목양실 러브레터 4
- 시가 있는 풍경 6
- 특집 <내가 크리스찬이 된 사연을 소개합니다> 8
- 우리 지체에서는 어떤 일이  
목장탐방 18  
제자 사역반을 마치고 22  
가정사역부를 찾아서 26  
멀리 멀리 갔어도 30  
예루살렘 성가대 32

■ 우리 이웃 좋은 이웃

한과 체험과 이웃 어르신을 찾아 36

우리 이웃 동호회 40

함께 하는 테마 여행 44

■ 중부 그루터기

포토 에세이 50

나의 삶 나의 신앙 52

사모의 글 56

새 얼굴 58

이런 일 저런 일 60

내 숨씨 우리 가족 63



22



30



36



50

함께9호\_2013 봄

발행일 | 2013년 4월 7일

발행인 | 조상용

편집인 | 김용수

기자 | 심재성, 조재란, 신신혜, 노상미  
차문현, 박현정

디자인 | 박나래

발행부서 | 문서홍보부

주소 | 대전시 동구 가양2동 20-11 대전중부교회

전화 | 042) 622-9991

홈페이지 | www.jungbu.or.kr

#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글 · 조상용 담임목사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일 3:18

몇 년 전, 한 이동통신 회사의 광고에서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라는 카피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적극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짝을 찾아가는 요즘 젊은이들의 연애 세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을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웃사랑이 무엇인지, 정곡을 찌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 이웃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도 ‘움직이는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말’로써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란 말씀은, 그것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뜻이지,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때에, 우리는 먼저 상대방을 향해서 “사랑합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의 마음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사랑의 말 뿐 아니라, 따뜻한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는, 직접 ‘행함’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즉 말로 하는 사랑을 뛰어 넘어, 실천하는 사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실, 사랑한다고 제일 많이 말씀한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외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행함’으로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우리는 희생까지는 못하더라도, 작은 일에서부터 사랑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왕따 당하는 친구 편을 들어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교회에 새로 나온 성도에게 먼저 악수를 청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사실 조금만 마음을 열어도, 우리 주변에 사랑할 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셋째는,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식이나 형식이 아닌 마음을 다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진실함이 빠져 버리면 우리는 사랑하는 ‘척’하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마음을 다하는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전부를 쏟아 부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막12:31)는 말씀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누구에게나 자기 사랑은 본능입니다. 자기를 위한 일이라면, 힘들어하지도 않습니다. 아까워하지도 않습니다. 지체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순서  
안도현

맨 처음 마당가에  
매화가  
혼자서 꽃을 피우더니

마을회관 앞에서  
산수유나무가  
노란 기침을 해댄다

그 다음에는  
밭둑의  
조팝나무가  
튀밥처럼 하얀  
꽃을 피우고

그 다음에는  
뒷집 우물가  
앵두나무가  
도란도란 이야기하듯  
피어나고

그 다음에는  
재 너머 사과밭  
사과나무가  
따복따복 꽃을  
피우는가 싶더니  
사과밭 울타리  
탱자꽃이  
나도 질세라, 핀다

한 번도  
꽃 피는 순서  
어긴 적 없이

평평,  
팡팡,  
봄꽃은 핀다



**안도현** 시인은

1961년 경북 예천에서 태어나 1984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이래 독자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는 시들을 써오고 있다. '서울로 가는 전봉준', '모닥불', '그대에게 가고 싶다', '외롭고 높고 쓸쓸한' 등의 시집과 '연어', '증기 기관차 미카' 등의 어른을 위한 동화를 펴냈다.

| 특집 | 내가 크리스찬이 된 사연을 소개합니다



---

# 내가 만난 하나님, 거부할 수 없었던 사연을 공개합니다.

글 · 편집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되었을까? 일부러 생각해 보는 일은 별로 없지만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참으로 많은 사연들이 있는 것을 본다.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할 것을 약속해 놓고 교회에 몇 주 출석하다가 용두사미가 되는 일, 극심한 낙망과 좌절 가운데 방황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일, 군 생활을 하면서 초코파이를 선물로 받고 진중세례까지 받았다가 사회에 복귀해서 다시 교회를 찾는 일 등등 모두 사정이 달라서 대하소설보다 더 엮을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만났든지 하나님을 만난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놀랄 만한 일임에 틀림 없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과 모르고 사는 삶의 차이는 너무 크기 때문이다. 아마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은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짐작하기 힘들 것이다. 단지 크리스찬은 많이 바쁘고, 배타적이며 쓸데없는 일에 돈과 시간을 낭비한다고 볼 수도 있다.

아니면 자신은 크리스찬이 아니지만 경외심을 갖고 대하기도 한다.

도대체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어떤 일이기에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을까? 하나님은 왜 나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 첫 만남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기 몇 분의 첫 만남의 사연을 들어 보고자 한다. 여기에는 몇 분의 글을 실지만 실은 모두 이해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연이 있다. 이 글을 읽은 다음에는 이웃들과 하나님을 처음 만난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 그 많은 사연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 자신의 숨겨진 첫 만남의 사연을 주신 네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신앙을 핍박하려던 내가 신앙에 잡힌 자가 되다

글 · 김덕현 장로

저는 전라남도 영광군에 있는 작은 섬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섬마을이 그렇듯이 고향은 우상과 미신에 의존했습니다. 가난한 섬마을에서의 청소년기는 그냥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스무 살의 어느 날, '이곳엔 소망이 없어, 이제 나도 돈을 벌어 출세해야 돼'라는 생각으로 부산에 갔습니다. 부푼 꿈과 달리 촌놈을 써주는 곳은 아무데도 없어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배를 탔습니다.

바다는 늘 사건사고를 동반합니다.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불안하고 무서웠고, 불안한 삶을 떨쳐버리려 술을 마셨습니다. 3년간의 이런 반복된 일상에 지친 저는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4년 동안 어선사업을 했지만 잘되지 않아 서울행을 결심했습니다. 서울로 떠난 그해 여름, 어머니께서는 위암으로 위독해지셨습니다.

죽을 고비를 반복하시는 상황 속에서 어머니는 막내아들을 찾았습니다. 당시 동생은 강원도 철원에 있는 기도원에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동생은 오자마자 병상에 누워계신 어머니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하셨지만 동생의 간절한 기도 끝에 어머니는 예수님을 영접하셨고, 그 다음날 어머니께서는 편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돈은 벌지 않고 기도원에서 봉사한다는 동생이 저는 못마땅해서 동생을 잡으러 대한수



도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기도원 사람들은 동생을 잡으러 온 저를 환영하며 예배드리러 가자며 예배당으로 이끌었습니다. 동생을 잡으러 왔다가 오히려 제가 잡힌 꼴이 되었습니다. 사실 예배가 그렇게 거부감이 들지 않았고 약간의 궁극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일만 더 있다 가기로 했습니다. 그게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었습니다. 저는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신앙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저는 40일 작정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 주십시오.” 40일이 되던 마지막

날 새벽 집회 때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방언이 터지면서 지난날의 지은 죄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날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고, 말씀을 통해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 5:24

저는 88년 대전중부교회 관리자로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특별한 은혜이자 축복으로 알고 자부심을 갖고 일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 84:10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행복한 사람입니다. 또한 20년 동안 성전과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미천한 저를 하나님께서 장로의 직분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성도님들을 남은 평생 동안 기쁘게 섬기며 살겠노라 다짐합니다.

#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면... 상상할 수 없습니다.

글 · 김순옥 집사 | 정리 · 편집부

절실함에서 찾은 예수님은 나에게 조금의 실망도 주지 않으셨다. 만약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지금 나는 모두가 힘들어하고, 절망하며, 때로는 끈을 놓고 싶어하고, 실제로 느닷없이 끈을 놓아 버리는 많은 사람들과는 달리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소망과 기쁨이 있다. 왜 지금 이라고 힘들고 어렵지 않겠는가? 하지만 소망과 그로 인한 기쁨이 훨씬 크게 나의 삶을 이끌어 간다.

나의 친정은 불교로 모두가 절에 열심히 나가는 가정이었다. 젊은 나이에 결혼한 시댁도 불교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가정이었다. 나와 남편(정구훈 집사)은 자연스럽게 불교가 종교였다. 특히 결혼 후 나는 예민한 성격 덕분에 불면증이 잦았고, 남편은 이러한 나에게 절에 나갈 것을 권유하였다. 특별히 거부감이 없는 나는 열심히 절을 찾았다. 불면증 치료도 있었지만, 집안이 두루 잘 살게 해 달라는 목적에서였다. 처음에는 초하루, 초사흘 등 매월 서너 차례 다니던 생활에서 32살 교회를 찾기 전에는 매일 절에 나갔으며, 이 무렵 천수경도 다 외우고 108배를 매일 하였다. 그러던 중 어느 날 108배를 하다가 쓰러지며 전신에 마비 현상이 일어났다. 지금 생각하면 우스운 이야기지만 절의 스님은 신이 내렸는데 내가 받아 들이지 않아서 그렇다고 했다. 하지만 당시로서는 심각한 문제였다. 그리고 이러한 전신마비 현상은 점점 심해졌다. 너



무 힘들었고 고달픈 날들 이었다. 하루는 비래동에 살 때, 통장님 댁으로 놀러 갔는데 그 집에서 전신마비로 쓰러졌다. 그런데 통장님이 당시 한밭감리교회 다니시던 분이었는데 우리 교회의 이종옥 권사님을 소개해 주셨다. 당시는 이종옥 권사님도 교회 다니신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인데, 무척 열심이셨던 분이셨다. 이종옥 권사님이 집으로 찾아와 교회 다닐 것을 권유하였다. 말도 안 되는 권유에 당연히 거절하였으나 권사님은 나와 남편을 앉혀놓고 깊고 오랜 기도를 해 주셨다. 그런데 남편이 다음 날부터 교회에 나가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아닌가? 남편은 “어차피 절에 다녀도 몸이 낫지 않는데, 손해 볼 것 없다. 한 번 믿어 보자.”라는 마음으로 수락을 한 것이다. 다음 날 바로 새벽예배에 참석하여 기도 받고 등록을 하였다. 그리고 열심히 새벽예배는 물론 모든 예배와 봉사활동, 금식기도를 정해 놓고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이후로 몸에 마비가 오는 현상이 없어졌다. 기적 같은 일이 나에게 일어난 것이다. 새벽예배, 가정예배, 말씀 묵상은 이후 내 신앙의 기틀이 되었다. 우리 가족 모두가 신앙을 갖게 되었고 기쁨과 소망의 삶을 살면서 당시의 아픔을 지금은 감사하게 받아 들인다.

내 신앙이 있기까지는 주변에 많은 신앙의 인도자가 있었다. 너무 감사한 일이다. 나도 그들처럼 다른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양가 부모님도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으로 떠나셨다. 아이들도 스스로 알아서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잠시의 아픔이 있었지만 너무 소중한 은혜에 감사할 따름이다.

# 나도 모르게 찾은 하나님, 이제는 오직 하나님 뿐!

글 · 유덕자 집사



2003년 9월 13일. 태풍 ‘매미’가 한반도에 상륙하여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안겨 주던 밤이었다. 모든 것이 어수선하던 때에 어머니가 부정맥 판정을 받고 을지병원 중환자실에 급히 입원을 하게 되었다. 어머니의 맥박은 분당 30회를 넘지 못하였고 의사 선생님은 응급수술을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다. 어머니는 중환자

실에 들어가셨고 중환자실 앞에서 나는 지난 일들을 생각하며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초조한 내 앞으로 다섯 구의 시신이 중환자실에서 나오고 유가족들의 울음소리가 무섭게만 느껴졌다.

천둥, 번개소리에 깜짝 놀라 멍했던 상태에서 정신을 차리면서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의 어머니를 살려주세요!”라고 외치고 또 외쳤다. 그때는 하나님이란 의미도 모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커녕 무당만을 찾고 의지할 때였다. 잠시

---

후 간호사가 어머니 이름을 부르면서 “보호자 분!”하고 호명을 할 때 ‘혹시나 잘못된 것은 아닐까?’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선생님께 다가갔다. 그런데 꿈같은 일이 일어났다. 기적적으로 어머니의 맥박수가 오르고 있었다. 의사선생님도 기적이라고 말씀 하셨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수 없이 외쳤다. 하지만 그 때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남편(김동춘 집사)은 모든 종교를 부정하던 사람이다. 내가 무당을 찾아가는 것도, 다른 종교를 언급하는 것도 반대했다. “내 자신을 믿어라!”고 말하며 주먹을 불끈 쥐기도 했던 사람이다. 하지만 지금은 좀 더 일찍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하지 못한 것을 매우 안타까워했다. 믿을 것은 내 자신 밖에 없으며 강함을 뽐내던 남편은 얼마 전 아버지학교 세족식에서 내 발을 닦으면서 발등에 눈물을 흘렸다. 얼마 전에는 다리 수술을 했는데, 병상에서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행복하고 편안하게 있는 모습을 보고 내가 오히려 은혜를 받았다.

2003년 10월 어느 날 이갑훈 집사님과 고희선 권사님의 권유로 부흥회에 초대를 받았다. 어색한 분위기를 뒤로 하고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잘 알지도 못하는 설교임에도 가슴에 와 닿았다. 나도 모르게 눈물도 흘렸다. 부흥회를 계기로 2~3주 교회를 다니고 있을 때 저에게 뜻하지 않은 일들이 한 번에 일어나고 말았다. 시아버님의 병환 수발, 딸애의 교통사고와 큰 딸의 사업실패로 나는 너무나도 힘들고 지쳐가는 하루하루를 맞고 있었다. 딸의 병원에 다녀오면서 이번 주에 교회에 나가면 마음먹고 교회에 등록 하자고 남편이 말했다. 나는 자연스럽게 “응”이라 대답을 했다. 남편은 더 나아가 “예수를 믿을 거면 확실하게 믿어보자!”하며 웃음으로 맞아 주었다. 주일에 출석하여 교회에 등록하고 오래 전부터 교회에 다닌 교인처럼 주일예배 참석을 꼬박꼬박 하였다. 그러던 중 방황하던 자녀들도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자녀들이 결혼을 하여 예쁜 손자, 손녀도 보았다. 지금은 이 모든 축복이 하나님 은혜로 확신한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그 무엇보다도 잘했다 생각한다. 믿음 생활하면서 건강이 좋지 않던 내가 건강을 되찾고, 가정은 회복되고, 말씀과 찬양으로 많은 은혜가 넘쳐 나는 것에 감사 또 감사한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게 해 주신 하나님,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이제는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아멘!”

---

# 내 삶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선물하신 예수님

글 · 장필순 성도 | 정리 · 편집부

2011년 대전중부교회에 등록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전까지 나의 삶은 절과 미신을 찾는 생활의 연속이었다. 특별히 불교적이지도 않으면서 습관적으로 절을 찾았고 미신을 통하여 마음의 위로를 얻었다. 그러한 생활이 전혀 이상할 것이 없이 당연하게 여겨졌으며 나의 종교생활이었다. 누구나 그렇지만 나도 많은 생활의 어려움이 있었고 그러한 것을 위로 받고 싶어했다. 그러기에 더 절과 미신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지금은?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이다. 오랜 시간 절과 미신에 빠져있던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 받고, 치유 받으며,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알아가게 되다니, 그것도 오랜 고민의 결과가 아니라 갑작스러운 변화의 결과라니.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러한 일이 가능하게 해 준 한 사람이 있다. 20여년 동안 끈질기다 할 만큼 나를 쫓아 다닌 한 사람, 올케 손부영 집사가 그 사람이다. 올케는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함께 교회 가기를 권유하였다. 나는 절을 다니면서 누구에게도 함께 가자고 권유한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귀찮고 끈질기게 교회 나가기를 줄라대는지, 나로서는 참으로 귀찮고 때로는 힘들었다. 20년 동안 마다했으면 그만 할 때도 되었는데, 교회가 뭐길래 열심히 절과 미신으로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는 나



를 힘들게 한단 말인가? 그래서 딱! 한 번 가 보기로 했다. 그것도 동생 장옥분(가양14목장)과 함께 올케와 2011년 11월 새생명초청행사를 찾았다. 그런데 교회를 들어서는 순간 놀란 만큼 편하고 안정된 나를 발견했다. 20여 년을 거부했던 교회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기쁨을 느낄 정도로 다가온 것은 무슨 이

유인가? 아마 형식적으로 절을 찾으면서 미신을 좇으며 살았던 많은 세월에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거부감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부모님마저 미신에 휘둘러 사는 나를 걱정할 정도로 생각 없이 잘못된 종교생활을 한 내 자신에 대한 억눌림이 있었고,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길을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올케는 그 길을 변함없이 일깨워준 신앙의 길잡이이며 스승인 셈이었다.

금산 부리면이 고향인 나는 7남매의 가정에서 자라났다. 집 근처에 교회가 있어서 5남매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지금도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 동생(장옥분)과 나만이 먼 길을 돌고 돌아 이제야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다. 얼마 전 둘째 딸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독교 전통이 깊은 집안의 자제와 결혼을 하였다. 남편은 개인택시를 새로 시작하여 시간 내기가 어려워 적극적으로 교회 출석을 못하고 있지만, 우리 가족의 가장으로서 신앙생활을 이끌어 갈 것을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는 말에 너무 좋아하고 칭찬해 주신 부모님과 아직 교회 출석을 하지 않는 가족들이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이 기도 제목이고 바람이다. 고단했던 50여 년의 내 삶에서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동생 옥분이기도 같은 생각이다. 지금은 식당을 운영하느라 주일 중심으로 신앙 생활을 하지만 여러 봉사 활동도 해 보고 싶고, 공부도 해 보고 싶다.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예수님은 내 삶에 찾아 오셔서 최고의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에게 찾아 오신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더 좋은 선물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 우리 지체에서는 어떤 일이 | 목장탐방

비래 3, 비래6 연합목장!

# 연합하여 동거함이 아름다운 목장

글 · 조재란 기자



며칠 동안의 폭설로 길 양쪽엔 눈이 소복히 쌓여있고 군데 군데 빙판길은 아직도 긴장되는데 별로 낭만적이지 않은 비까지 내리던 1월 마지막 주 금요일 오전 11시. 비래3목장과 비래6목장의 연합 목장모임이 있었다.

직장생활이나 자영업을 하는 목원들은 목장모임에 참석하기가 쉽지 않다보니 두 세명이 모이기도 힘든 상황이었다. 그래서 두 목장이 연합으로 목장모임을 하게 되었고 매번 대여섯명 정도 참석하신단다. 날씨가 워낙 춥고 뒤숭숭해서 몇 분이나 오시려나 슬쩍 걱정이 되었다.

이 날 모임은 이후남 권사님덕에서 모였는데 권사님의 자녀이며 정완명 목사님의 아내인 황보라 사모와 딸 하울이도 있었다. 모임시간이 되어가며 한 분 두 분 오시더니 모두 아홉 명이 되었는데 비래 3목장의 이후남 권사님, 이인자 집사님, 고은주 집사님과 장남 지성이, 황보라 사모와 하울이. 그리고 비래 6목장의 이연옥 집사님, 서숙자 집사님, 김영희 집사님이셨다.

이연옥 집사님의 인도로 '십일조의 축복을 경험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눔을 했는데 참 솔직하고 진지한 고백과 나눔들이 오고 갔다.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어 준비해 두었던 십일조를 다른 용도로 지출해 버리고 말았는데 그로 인해 마음도 생활도 더 힘들었다는 고백, 십일조를 하면서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게 되고 검소한 생활을 하게 되더라는 고백, 젊은 시절 신앙적 체험으로 인해 십일조에 대한 축복을 깨닫고 오랜 세월 십일조 생활을 성실히 해오고 계신다는 간증, 온전한 십일조란 어느 부분까지이며 과연 나는 온전한 십일조를 하는 지 고민하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말씀, 내린 눈을 치우느라 수북히 쌓아올린 하얀 눈들 보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을 쌓아주시겠구나 생각하며 자연현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셨다는 말씀, 그 때 그 때 형편에 따라 십일조를 드린다면 조금은 하나님께 죄송하다는 듯 수줍게 미소 짓던 모습. 직분자로서 혹은 신앙생활의 연륜으로서의 체면을 생각한다면 감추었을 자신의 부족한 모습들을 아낌없이 내어 보이며 회개하고 또한 돌이켜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자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었다.

모임을 마치니 언제 준비를 하셨는지 이후남 권사님께서 분주히 음식을 내어오셨다.

손수 빚으신 만두와 알록 달록 예쁜 고명이 올려진 떡국, 아삭아삭 김장김치와 갖가지 반찬들이 한 상 가득 차려졌다. 목장모임을 마친 뒤 늘 목원들이 함께 식사를 하신다고 한다. 후식으론 향기롭고 맛있는 과일과 깔끔한 커피 한 잔 까지

## 비례3목장



**이후남 권사님**

우리교회의 육적 양식을  
책임지시는 식당봉사팀장님



**이인자 집사님**

한 때 여러 교회를 다니시며  
간증사역을 하신 능력자



**고은주 집사님**

아이들 만큼이나 아름다운 미소로  
유치부를 섬기고 계신 천사선생님

완벽한 진수성찬을 먹었다. 후식을 먹으며 목원들은 또 한바탕 이야기꽃을 피울 분위기여서 목원들끼리의 오붓한 시간을 드리기 위해 인사를 드리고 먼저 일어섰다. 이후남 권사님께서 대문 밖까지 나오시며 두 손을 모으시고 허리까지 굽히시며 내게 배웅인사를 해주셨다. 한참이나 어린 내게 너무나 공손히 해주셔서 그분의 겸손함에 난 바닥에 납작 엎드려 인사를 받아야 할 것만 같았다. 이 목장이 견고한 신앙과 사랑으로 결속해 있는 것, 그 중심에 목원들의 섬김과 겸손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비록 '함께'지를 위한 취재였지만 이 목장을 통해 오히려 은혜 받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다.

## 비례6목장



**이연옥 집사님**

최근 교통사고를 막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꼭 빠져 살고 계신 집사님



**김영희b 집사님**

늘 평안한 삶을 주심에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집사님



**정태옥집사님**

갓가지 특별요리로 목원들의 입을 행복하게 해 주시는 요리의 마술사



**서숙자 집사님**

올해 성경통독대회를 개근하여 마친 말씀의 승리자



**양희숙 성도**

순수한 영혼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목장의 막내

# 나를 찾고 성숙하게 만들어 준 사역반

글 · 안중근 집사(사역훈련반 수료)



먼저 2년 동안 제자훈련반, 사역훈련반을 마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좋은 가르침을 주셨던 제자반 이석환 목사님과 사역반 조상용 담임목사님께 감사 드린다. 제자훈련반을 마친 10명이 사역반 2기로 출발 했다. 매주 화요일 저녁 8시부터 11시30분까지 1년 과정을 예배 출석, 기도와 말씀보기, 성경 암송, Q.T, 주일예배 설교요약, 독후감 쓰기, 교재 예습 및 복습 등 많은 과제를 늦은 시간까지 피곤함을 이겨내며 할 수 있

었던 것은 말씀이 은혜가 되고, Q.T 나눔을 통해 서로 이해하고 변화되는 자신과 학우들의 모습을 보며 참고 인내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큰 보람으로 여겨진다.

사역반은 제자반과 달리 조상용 담임목사님과 함께 교회 비전과 사역을 향해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며 기쁨도 나누게 되었고, 특별히 목장의 리더 양육에 온 힘을 다하시는 목사님의 뜻을 더 깊이 알게 되어 힘이 났다. 목장모임의 소중함을 깨달은 나는 목원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경청하는 목자로 조금씩 성숙해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배움을 실천하기 위해서 남 2, 3목장 파티에 새신자 5명을 초대해 식사교제와 간증으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후 교회에서 진행되는 새생명 축제에는 9명을 초청 하였고 교회에 7명을 등록시켜 2012년 전도2등 상을 받았다. 이것을 계기로 전도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나를 통하여 인도하게 하심을 깨달았고 깊이 감사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사역반 졸업여행을 통하여 지도해 주신 목사님, 학우님들과 부산에서 즐겁고 기쁜 시간을 갖은 것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얻은 특별한 추억이 되었다.

“여러분, 꼭 제자반과 사역반의 문을 두드려 보십시오.”

# 오랜 기다림과 깨달음

글 · 이신순 집사(제자반 수료)



신앙생활 26년, 결코 짧지 않은 연륜이다. 하지만 오랜 신앙생활이 자량이 될 수 없는 것은 그동안 교회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2011년 아내(서정자 집사)의 적극적인 권유로 교리공부를 시작했다. 처음 받는 교회 교육이기도 했지만,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운 적이 없는 무지에서 말씀을 알아가는 즐거움으로 인도한 교육이기도 했다. 1년 여에 걸친 교리공부를 끝내고 이제 좀 쉴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내는 제자

반 공부를 권했다. 제자반 공부에 등록하는 것은 큰 부담이었다. 교리공부와는 모든 면에서 특성이 다른 수업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직장의 퇴근이 불규칙한 나에게는 제대로 수업에 참석할 수 있을지 조차 걱정이 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제자반 등록을 하고 처음에는 후회도 하고, 중단할 결심도 했다. 그러나 아내와 담당 목사님, 함께 공부하는 분들, 화요일에 공부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이해해 주고 격려해 준 직장 동료들의 이끌어 줌으로 모든 역경을 이기고 수료할 수 있었다.

결코 수월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졌었고 실제로 힘든 여건에서 수료한 제자반 공부를 통해서 나는 큰 기쁨을 얻었다. 깨달음의 기쁨이다. 제자반 공부는 앞으로 내가 신앙생활하는 데 든든한 바탕이 되어 줄 것으로 믿는다.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면서 틈틈이 성경읽기-요즘 특별히 시간 내기가 어려워 스마트폰으로 보고 있다-를 시도하고 있다. 이 작은 변화가 나에게는 참으로 대견한 일이다. 제자반 공부 내내 격려해 주고 기도해 주신 목사님, 동기분들, 직장 동료들, 언제나 든든한 믿음의 후원자인 아내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제자반 수료하게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돌아봄과 도전의 시간

글 · 김미영 집사(제지반 수료)



2년 여간 바울목장의 목자로 섬기며 그동안 얼마나 말씀을 모른 채 목원들을 대해 왔나 하는 부끄러움과 갈급함을 느끼던 중 제자훈련을 한다는 광고를 보고 ‘아! 이거다’라는 생각에 서슴없이 등록을 했습니다. 첫날 오리엔테이션에서 훈련 중에는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 등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들으면서 조금은 흥분과 불안으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해야 하는 Q.T, 성경 읽기, 기도 외에도 말씀 암송과 예습, 설교 요약 등 그동안 익숙하지 않았던 것들에 처음에는 몸살도 나고, 친정아버지의 죽음 직전까지 가는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이게 아닌가? 그만 두어야 하나?’라는 유혹에 빠져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늘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는 이석환 목사님과 딸처럼 막내 동생처럼 사랑과 기도로 응원해 주시는 낮 반 집사님들 덕분에 무사히 제자훈련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Q.T가 뭔지도 모르던 내가 매주하는 Q.T 나눔을 통해 그동안 얼마나 성경을 건성건성 읽었는지 반성하게 되었고, 말씀의 재미가 붙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던 것이 말씀 요약을 통해 한 번 더 생각하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짧게라도 혼자만의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온전히 주님과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지를 조금이나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주님의 가치에 따라 살아가게 해 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1년의 짧은 훈련으로 한꺼번에 바뀔 순 없겠지만 이 한 발걸음이 나를 아버지께로 한발자국 더 나아가게 할 것임을 믿습니다. 조금해하지 않고 조금씩 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를 훈련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나에게 주실 사명과 훈련을 기대합니다.

# 2012년은 신앙의 여정에서 뜻 깊은 한 해

글 · 이상경 집사(제지반 수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마 28 : 18~20)

제자훈련은 내게 설레임과 약간의 부담으로 다가왔다. 첫 시간 신앙 간증과 자기고백의 시간은 낯설고 어색하기만 했지만 주안에서 나눔을 갖는 시간이 인상적이었다. 매주 성경읽기, 교재예습, QT, 요절외우기, 독후감 등은 낮에 일을 하는 나에게는 피곤함과 부담스러움으로 힘들었지만 저녁에는 텔레비전을 멀리하게 되고 과제와 성경 읽는 시간을 갖게 하였다. 가장 힘든 것은 Q.T였다. 낮에는 직장 일로 바쁘고, 저녁에는 밀린 집안일과 피곤함으로 성경을 묵상하고, 경건함을 되돌아 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쉽지 않았다. 목사님께 의논 드린 결과 직장 일을 하면서 틈틈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통하여 Q.T를 실천했다.

제자훈련은 말씀을 이해하고 주님의 제자 되어 살아가는 삶의 훈련이기에 그 사람이 생활하는 모든 것이 신앙이라는 목사님의 말씀에 나의 생활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못한 나 자신이 부끄러웠다. 매일 주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유지하는 것이 내 삶의 영적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고, 배우는 시간마다 깨닫고 순종하는 은혜와 능력의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했다.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거룩한 인격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거듭 깨닫게 하였다. 또한 주님이 뜻 하시는 대로 살아 갈 것을 다짐하였다. 2012년 한 해가 내 신앙의 여정에서 뜻 깊은 날들이 되었음을 기억하며, 제자훈련을 통해 내게 주신 은혜의 말씀과 깨달음으로 나의 삶이 변화되기를 소원한다.

# '가정을 치유하는 교회'를 향한 기쁜 동참

글 · 차문현 기자

**사전적 의미**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됨.

**현대의 의미** 가화만사성, 집안에 화가 있으면 모든 일에 '성'이 남.

안타까움을 담아 재미삼아 만들어 본 '현대 레알 사전'이다. 과학계 표현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슬프게도 과장은 아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이 되 듯, 가정의 문제는 사회 곳곳의 문제로 번진다. 얼마 전에 종영한 '학교2013'에서는 양 극단의 가정환경을 볼 수 있었다. 무관심과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문제아가 된 학생이 있는가 하면, 부모의 욕심으로 인한 지나친 관심과 간섭 속에 자살을 생각하는 학생도 있었다. 또한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종영한 '내 딸 서영이'에서 극중 서영이는 한 개인에게 주어진 다양한 역할들에서 갈등을 겪었다. 딸과 아버지와의 갈등, 아내로서 부부의 문제, 며느리로서 시댁과의 갈등에 놓여있다. 드라마는 허구이지만 다분히 현실반영적이다. 우리는 가정에서의 다양한 역할들 가운데서 문제를 겪을 수도 있고, 더불어 증가하는 사회문제는 이와 무관하지 않다.

웃어른들의 지혜가 담긴 다섯 글자인 '가화만사성', 본래의 아름다운 다섯 글자를 되살



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가정사역부를 섬기고 계시는 김혜경 사모님과과의 대담시간은 이러한 '힐링'과 '희망'의 출발이 되는 시간이었다.

중부교회의 사명 중 하나는, '가정을 치유하는 교회'이다. 부끄럽지만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우리 교회의 사명을 알게 되었다. 뜬구름 잡듯, 막연하게 내건 사명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므로 사명과 사역의 방향이 일치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의 마음이 들었다.

아직 가정사역부를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대신 '행부세' '가정사역학교'를 들어 본 사람은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사역들을 준비하며 진행하는 곳이 가정사역부이고, 이외에도 '아버지학교' '어머니학교' '상담실'을 통해 중부교회 및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다. 가정에 대한 소망이 기초가 되어 사역이 하나 하나 넓혀지고 있다.

이미 가정사역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은혜를 누린 사람들은 모두에게 얼마만큼 필요한 강의인지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며 권면하기도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가정사역학교 혹은 아버지학교에 관한 광고를 듣거나 권면을 받았을 때의 반응은 썩 좋지만은 않다.



'나는 어느 정도 괜찮은 남편인데 뭘 그런 걸 들어야 돼.' '아니 이 집사님은 나를 뭘로 보고 이런 걸 권해. 지금도 잘하고 있구먼' '들어보고 싶지만, 내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니깐 너무 창피해.'

어쩌면 이러한 반응은 지극히 당연할 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가 공부를 하고 무언가를 배우는 것은 단지 부족해서만은 아니다. 그리고 어떤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공부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자.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분명한 증거이자 사랑의 이야기이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사랑을 깊이 알아가며,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된다. 우리 모두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성경을 통해, 배움을 통해 보다 참다운 자녀가 되어가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가정사역부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배우면서 가정에서의 역할을 보다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 것



**1. 대전중부교회 가정사역학교 1학기 교육과정 (총13주)**

• 주제: 건강한 가정, 행복한 부부

- 1) 가정사역에의 초대
- 2) 결혼과 가정
- 3) 가족체계
- 4) 가족의 순기능과 역기능
- 5) 남편과 아내의 역할
- 6) 부부의 의사소통
- 7) 부부갈등의 원인과 해법
- 8) 부부의 자아(기질)
- 9) 사랑의 언어
- 10) 가정경제생활
- 11) 부부의 성
- 12) 가정의 영성
- 13) 수료식

**2. 가정사역학교 2학기 교육과정 안내 (총13주)**

• 주제 : 자녀양육과 의사소통

- 1) 사랑
- 2) 관계
- 3) 성격유형에 따른 양육태도
- 4) 자녀의 특성과 학습지도
- 5) 건강한 부모 되기 I
- 6) 건강한 부모 되기 II
- 7) 연륜에 따른 가정생활 및 자녀교육
- 8) 자녀와의 갈등해소
- 9) 마빈의 방
- 10) 진정한 인격교육
- 11) 대상관계이론과 부모역할
- 12) 자녀와의 의사소통
- 13) 지역상 회복, 피니브넬 (수료식)

이다.

이러하기에 사모님의 말씀처럼 가정사역부의 사역들은 '누구나' 와서 들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꼭 문제가 있어야만 이곳에 온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공동체는 가정이었다.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시며 가족 공동체를 형성하게 하셨다. 너무나 소중한 이 공동체를 가꾸는 일에 시간과 물질, 노력을 쏟는 것은 진정 가치있는 일이다.

김혜경 사모님과 가정사역학교에서 간사로 섬기시는 윤미경 집사님이 계시지만 더 많은 분들의 섬김이 필요할 것 같다. 장차 예비부부학교, 시장학교(시부모님 장인장모 학교) 등과 같은 사역도 기도하며 기대하시기 때문이다.

중부교회의 사명처럼, 사모님의 기도제목처럼 가정들이 치유되며 회복되기를 함께 기도하며 기대한다.

# 선물

글 · 윤웅희(늘푸른 청년회 29기\_독도경비대)



우선 부족하지만 이렇게 글로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있는 독도경비대를 소개하자면, 저희는 50일 간격으로 4개의 지역대가 울릉도와 독도를 순환하며 지키고 있습니다. 독도를 왜 군인이 아닌 경찰들이 지키나요? 군대가 주둔하는 곳은 대개 영토 분쟁 지역에 위치합니다. 자

국 뿐 아니라 외국에 파견을 나가서 분쟁을 해결하기도 합니다. 경찰은 주권이 안정된 자국 영토 내 자국민의 치안유지를 위해 존재합니다. 군인이 아닌 독도경비대가 지킴으로써, 독도는 영토 분쟁 지역이 아닌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대내외 간접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희의 주된 임무는 해안경계를 통해 대간첩작전, 의명 특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최동단 영토인 독도를 지키는, 독도경비대 윤웅희입니다. 오늘 저는 누구를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라 제 삶을 나누어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 힘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몇 글자 적어봅니다.

사실 저는 다른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꿈에만 지독하게 매달려 있는 사이, 군복무 문제가 제게도 서서히 압박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기도를 드리고 돌아와 인터넷을 무심코 뒤적이는데, 최초로 독도경비대원을 공개선발한다는 공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 바로 이거다!" 싶었습니다. 알려진 정보가 없다보니 주변에서는 반대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무엇이든지 마음먹고 결정하면 꼭 해야하는 성

격이라, 주변에도 알리지 않고 몰래 시험을 보러 홀로 서울까지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저의 간절함이 닿았는지, 저는 독도경비대 의경 1기라는 멋진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도피성 군입대를 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하나님은 이런 저의 자존심 까지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처음에, 저는 제가 선택하고, 또 선택받아 온 독도경비대였지만,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소중한 인연들의 곁을 떠나는 것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게다가 매일 낮에는 체력 및 전술 훈련, 밤에는 초소로 투입되어 해안 경계 근무를 서야했고, 사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스스로 늘 "난 강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현실은 생각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 힘들어요. 제게 힘을 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 수 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은 바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하는 일마다 칭찬을 받고, 모두의 사랑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본부의 주목을 받게 되어, 비어있던 경비대 예산을 담당하는 경리대원으로 선발되는 영광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다가왔습니다. 청년에서 부회계를 해보기는 했지만, 회계는 제게 생소한 분야였고, 저보다도 학벌 등 훨씬 훌륭한 대원들이 탐내던 자리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내세울게 아무것도 없었던 저는 그때마다 오직 한가지만 생각했습니다. "100%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자!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분야에 재능을 허락해주셔서, 지금은 재능도 인정받고 소중한 경험을 쌓으며, 즐겁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모두 우연처럼 일어난 것 같지만, 그 속엔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자만심 가득한 제게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것을 알게 하였고, 또 그 안에서 사랑하는 이들의 소중함도 알게 하셨습니다. 과정 속에는 항상 인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 서둘러 조급해하지 않고 기도로 준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그 길들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큰 미래를 우리에게 허락하실지 기대하며, 그 시간들을 즐겨보는 것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를 절대 부끄럽게 하시지도, 실망시키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독도경비대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께 하나님은 어떤 선물을 주셨을까요?

| 우리 지체에서는 어떤 일이 | 예루살렘 성가대

# 아름다운 보배들의 합창! 축복의 예루살렘 찬양대!

글 · 전승영 집사(예루살렘 성가대장)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시편146 : 2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를 찬양할 지어다

시편 150 : 6

태어날 때부터 평생을 앞 못 보는 장님으로,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농아로 살았던 헬렌 켈러가 자서전 <The Story of My Life>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단 하루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석양의 아름다움과 무지개의 영롱함을 보련다. 내가 단 하루만이라도 들을 수 있다면 줄줄 흐르는 시냇물 소리를 들으련다. 그리고 내가 단 하루만이라도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솜씨를 찬양하련다!”

“찬양”이라 함은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위대하심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신 능력 있는 일들에 대한 찬사로서, 신령한 노래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영원토록 변함없으실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찬양한다는 것은 단순히 봉사한다는 의미를 넘어 내가 찬양을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영광이고 축복이라 생각한다.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는 찬양에 담긴 이러한 깊은 뜻을 깨달아 “말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따라 귀한 사명을 잘 받드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주일 아침 8시에 4,50여 명이 연습으로 모여, 9시 2부 예배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이 충만한 중부제단 최고의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라 자부할 수 있다.



우리 찬양대의 보배들을 소개하면, 이규인 지휘자님은 지도하는 학교 합창부가 우수한 성적을 올릴 만큼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아 우리 찬양대의 수준도 향상시켜가고 있으며, 문정애 반주자님은 우리교회 찬란한 찬양대 역사에서 빛나는 인물(?)로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의 베테랑 실력파이고, 그리고 권연우 반주자님은 무한한 가능성을 갖춘 재원으로, 이 분들이 우리 찬양대의 견인차 역할을 한다.

한편, 이에 뒤질세라 아름다운 찬양 실력은 기본이고 연습에 제일 먼저 나와 준비물 등 찬양대 살림살이를 똑 소리나게 챙기는 이연옥 회계님과, 서글서글한 호



남으로 가창력이 뛰어나고 찬양 후 뒷마무리까지 완벽하게 정리하는 매력적인 유영삼 총무님은 우리 찬양대의 숨은 진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시온찬양대의 한일민 지휘자님, 유정화 대장님을 비롯하여 대원님들 다수가 새벽예배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루살렘 찬양대를 섬기시는 귀한 분들이다.

그리고 더욱 귀한 것은 예배후 찬양대 연습이 끝나자마자 중등부, 초등부, 유년부교사로, 카페 및 식당봉사로, 재정부, 방송실 등 봉사로, 각 부서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1인 2,3인 이상의 역할로 헌신 봉사하시는 한분 한분이 얼마나 귀한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으며, 주님을 닮은 모습이랄까 너무 본받고 싶으신 분들이 많아 저에게는 가슴 벅찬 축복으로 느껴진다.

따라서 저는 찬양으로 인해 받은 이 축복이 육체가 허락하는 순간까지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싶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예루살렘 찬양대라는 곳에 내가 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영원한 찬양을 드리고 싶다. 아울러 우리 중부교회의 더 많은 형제자매 가족들이 찬양대라는 울타리에서 같이 동고동락 하면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면, 주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실까? 하는 꿈도 꾸어본다.

끝으로 우리 중부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꽃샘추위 뒤로 봄철에 새싹이 돋아나고 영롱한 꽃들이 만발하여 온 세상에 향기가 그윽하듯이, 우리들의 믿음도 더욱 새로워지고 가슴 따뜻한 아름다운 마음들로 한데 어우러져, 기쁨이 충만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천국에서도 영원히 해같이 빛나기를 간절히 소원해본다.

# 한과는 보물이다

글 · 노상미 기자



‘그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다, 우리 전통 우리 맛의 한과.’

대전 문화 예술의 거리인 대흥동 골목에서  
전통한과 전문점〈서관석 수제명과〉에서 아이들의 손으로 직접  
우리나라 전통과자를 체험한다.



올해에는 2월 24일이 대보름이다. 대보름이 다가올 즈음이면 대형마트부터 바쁘다. 대보름 상품이 포장되어 진열장에 나오면 그때부터가 대보름이다. 옛날의 그 날이 그리워지는 날이기도 하다. 구정이 지나고 딱 찬 보름달이 얼굴을 내밀 즈음이면 아이들은 정신없이 바쁘다. 꼬질꼬질 새까만 외모로 못 쓰게 된 깡통을 찾아다니며 미리 맘에 드는 것으로 물색을 해두었고, 손이 다치지 않게 깡통 양쪽 귀 끝에 구멍을 내어 손잡이를 만들고, 몸통 군데군데 불구멍을 숭숭 뚫는다. 그런 다음 불쏘시개로 쓸 관솔과 솔방울도 바지 주머니에 불룩하게 넣어둔다. 이것이 정월 대보름 쥐불놀이문화였다. 옛날 아이들은 놀이도 스스로 기획하고 준비하면서 진행까지 협심하면서 혹은 혼자서도 가능했었다. 어쩌면 자기주도학습은 과거에서 찾은 보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옛 것이라 해서 모두 낡고 허술한 것이 아님은 “한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돈이 없으면 과자라도 먹으라는 말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넘쳐나는 것은 설령 과자 뿐이겠는가? 교육의 새바람에 체험이 연계되면서 추억을 매개로 옛날 과자들도 다시 생겨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문헌에는 ‘과줄’로 언급되었던 한과는 고려시대 차 문화와 함께 발달하다가 조선시대에는 통과례 음식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특히 강정은 민간에도 널리 유행하면서 기호식품으로 각광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전통과자의 모습으로 한과가 대중화된 것은 아니다. 상품의 다양한 모양새로 길거리 난장에서 백화점까지 진열된 한과는 전통의 맛 그대로가 아니다. 모양과 빛깔은 비슷할지라도 맛은 제각각 다르게 연출 되었을 뿐이다.

### 한국 전통의 맛, 손으로 만나다.

30년 동안 전통 한과를 만들어 온 서판석 장인, 아이들이 직접 전통한과를 만들고 싶어 한다는 전화를 받고나서, 여러 날 동안 유과와 매작과 재료뿐만 아니라 다식도 준비해 주셨다. 일 년 중 가장 바쁜 명절기간 입에도 흔쾌히 시간을 내주셨다. 한국 전통음식의 특징은 오랜 숙성의 기간과 정성에 있는 만큼 아이들의 표정도 진지해 보였다. 오늘 아이들이 만들어 볼 한과는 백년초, 단호박, 뽕잎에서 추출한 천연색소를 조청과 함께 입힐 색색의 유과와 예쁘게 모양을 낼 수 있는 매작과(타래과), 고소한 콩가루로 만들어질 콩다식이다.

유과(강정)는 찹쌀가루를 반죽하여 기름에 튀긴 후 고물을 묻힌 과자이다. 찹쌀가루를 반죽할 때에는 꿀과 술을 넣고 끈기가 생길 때까지 쳐서 가늘게 썰어 말린 후 기름에 튀긴다. 뽕잎을 도톰해진 몸통에 조청을 입힌 후 백년초, 단호박, 뽕잎의 천연색소를 입힌 고물을 돌돌 굴러가며 골고루 묻히면 완성된다. 작은 손으로 둥글둥글 굴러가면





서 만든 유과를 한입에 쏙 넣어 맛을 보는 아이들의 입가에는 향긋한 웃음소리가 나왔다. 웃고 있는 아이들의 사진을 찍어주는 데 그 맛이 너무도 궁금해졌다. 입안에서 살살 녹아내리는 조청의 맛과 빵잎의 시골향이 절묘하게 내 입안에서 아삭거리고 있었다. 매작과는 중학교 때 실과시간에 타래과라고 배운 적이 있던 과자이다. 밀가루에 소금, 생강즙을 넣고 반죽한 다음, 얇게 밀어 썰어서 모양을 낼 수 있는 과자이다. 조리사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서 천연색깔로 다양한 모양을 연출해 시범을 보이시고 아이들은 나름대로 마음을 담아 맘에 드는 모양을 만들어 냈다. 이것을 기름에 튀겨서 꿀을 묻히니 과자에서 반짝반짝 윤기가 흘렀다. 이렇게 만들어진 매작과는 먹기에도 아까운 과자작품이 되었다.

다음으로 만들 한과는 다식이다. 다식은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손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음식이기도 하다. 여러 가지 가루를 조청이나 꿀로 알맞게 반죽해서 다식판에 찍어내기만 하면 완성이다. 오늘은 콩으로 만든 콩다식이다. 고소하면서 달근한 맛이 입안에서 범벅이 되어 느끼함을 녹여준다. 따뜻한 차와 함께 마시면 더 좋았을 맛이 자연스레 그려진다.



이렇게 완성된 한과는 동네 노인정의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위한 깜짝 선물이 되었다. 함께 한과 만들기 체험에 참여한 아이들(김가온 외 8명)은 우리나라 전통한과에 담긴 역사를 배우고, 이렇게 작은 마음들이 정성스레 종이상자 안으로 색색깔의 한과가 되어 무료하실 할머니들의 오후를 달콤하게 녹여주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과자를 한과(韓菓)라고 부르는 것은 서양의 과자와 구분하기 위하여 부른 이름인데 중국의 한과(漢菓)와 혼동될 우려도 있다. 그래서 한과라는 명칭보다 ‘과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쌀을 주식으로 오랫동안 살아 온 우리 조상들은 곡류, 두류, 견과류, 꿀, 기름을 이용하여 과자를 만들어 왔다. 특히, 곡물과 견과류, 과일 등을 사용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나라의 과자보다도 영양면에서도 매우 뛰어난 한국 고유의 전통식품이다.

### 쌀을 주식으로 해왔던 우리나라의 어린이에게 가장 좋은 쌀 과자, 전통한과

한과는 쌀, 밀가루, 견과류 등을 주재료로 하여 꿀과 기름 등을 부재료로 하여 만들어진 우리나라의 전통과자이다. 특히 쌀과자를 좋아하는 전수연(10세) 양은 오늘 제대로 된 쌀과자를 먹을 수 있다며 한과 맛보기에 더 신이 났다. 말없이 손과 눈이 바빴던 김가온(11세) 양도 매작과 모양 만들기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함께 한 아이들이 ‘한과 만들기’에 열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과자>라는 테마보다 마음이 담긴 준비된 음식 덕분이었으리라. 정성은 바로 향과 빛깔에서도 묻어나왔다. 꿀과 기름을 만난 매작과는 신선들이 먹었음직한 빛으로 탄생하였고, 진초록 콩다식은 맛이 참으로 고소했다. 한과 명인 서판석님은 한과에 들어가는 조청도 직접 만들어 사용하신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넘기지 않으시면서 1982년부터 지금까지 옛 전통방식 그대로의 한과를 지켜내고 계셨다. 전통한과를 만들기 전에는 빵을 구우셨다는 명인이 전통한과를 고집하시는 이유는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았다.

대전에 전통방식 그대로 한과를 만드시는 분이 이웃으로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풍요로운 하루였다. 서판석 명인의 ‘전통한과 세계화’의 꿈을 이루는 그날까지 한과사랑 나라사랑 합시다.

### 찾아가는 길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54번 길 50 대전평생학습관 맞은편 2층  
T. 042-223-2290 <http://www.수제명과.com>



# 소망을 품고 생명을 키워가는 엄마독서동아리 잎싹독서회

글 · 심재성 기자



자녀교육에서 중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 특히 아이들의 독서교육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요즈음이다. 그런 이유 때문에 현재 자녀를 키우는 엄마들의 많은 고민 중 하나는 아마도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책을, 좀 더 많이, 좀 더 체계적으로 읽게 할 수 있을까?’일 것이다. 하지만 하루에도 수 십 권의 새 책들이 출판되고 있고 각양각색의 다양한 읽을거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아이에게 정말 잘 맞는 책을 찾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책을 읽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맞는 다양한 독후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책을 통한 아이와의 소통 문제는 엄마 혼자 알아서 하기엔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고민에서 시작된 엄마들의 자발적인 독서회 모임이 우리 지역에 있어 이 지면을 통해 소개하고자 한다. 지난 2011년부터 송촌동을 중심으로 모인 엄마들이 독서회를 만들어 매주 독서 모임을 열고 있는 <잎싹독서회>가 바로 그곳이다. <잎싹독서회>의 회장(박진화, 송촌동)을 만나 독서회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Q. 먼저 <잎싹독서회>를 소개해 주세요.**

**A.** 우리 독서회는 지난 2011년 5월 <스편지맘>이란 이름으로 처음 출발했습니다. 지금은 동구 지역 엄마들도 회원으로 있지만, 처음에는 송촌평생학습 도서관 주최로 회원모집이 되어 송촌동 인근 엄마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졌고 활동장소도 송촌평생학습 도서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도서관측에서 강의실이나 강사 배정 문제 등의 편의를 제공 받기는 하지만,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 회원들의 자발적인 필요와 요구에 맞게 독서회 활동이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2월, 송촌평생학습 도서관 엄마독서동아리 모임의 성격을 대외적으로 더 확고히 하고자 공모를 통해 명칭을 <잎싹독서회>로 바꾸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독서회 이름은 황선미 작가의 <마당을 나온 암탉>의 주인공 ‘잎싹’처럼 소망을 품고 생명을 키워가는 엄마들의 모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름처럼 소망을 품은 우리 아이들을 키워가는 독서회가 되고자 합니다.

**Q. 독서회를 만들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A.** ‘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책을 골라 읽힐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은 누구나 하고 있을 거예요. 때마침 송촌평생학습 도서관에서 저학년 아이들의 독서교육에 관심을 가진 엄마동아리 회원을 모집했던 거고요. 회원들을 만나보니 모두 이웃들이어서 금방 편안한 모임으로 자리 잡아갔어요. 아이들에게 읽힐 만한 책들에 대한 각자의 정보도 나누고 독후활동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자리였죠. 이러한 활



동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책을 읽고 자기 생각과 느낌을 제대로 표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도 엄마들끼리 실감하고는 했습니다. 아이들 독서수업과 독서치료를 십여 년간 꾸준히 하고 계시는 열정과 경험이 풍부하신 멘토 선생님이 있으셔서 엄마들에게 더욱 알차고 유익한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또래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로서 서로의 고민과 생활사도 나누고자 한 것도 계기가 될 수 있겠네요.

**Q. 그럼 지금 독서회에는 또래 엄마들만이 모이고 있나요?**

**A.** 초기 회원은 저처럼 저학년 자녀를 둔 엄마들이 주축이었는데, 지금은 자녀를 출가시킨 연령대의 회원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독서에 관심 있는 분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독서회를 지향하고 있기에 연령층도 모임 초기보다 다양해졌다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모인 회원이 현재 15명 정도이고, 정기모임에는 평균 8명에서 10명 정도의 회원이 꾸준히 나와 활동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Q. 독서회의 주된 활동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A.** 매주 목요일 오전 2시간씩 정기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송촌동에 있는 송촌 평생학습도서관 2층 학습동아리실인데요. 모임의 주된 활동은 아이와 엄마에게 모두 재미있고 유익한 책을 미리 선정해 함께 읽고, 토론하고, 독후활동도 연구해 보

는 활동을 합니다.

책은 주로 초등학교 아이들이 읽을 만한 책을 선정하고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좋은 책에 대한 안목을 키울 수 있는 데 주안점을 둡니다. 아이들에게 읽히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 책의 재미를 알고 아이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책 읽는 즐거움을 알리는 거죠. 더불어 그 안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겪는 엄마들의 마음과 살아가는 일상의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또한 독서활동에만 국한하지 않고 지난해 하반기에는 배달강좌로 한국사를 신청하여 모든 회원들이 함께 수강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한국사 편지>(웅진닷컴)를 교재로 한 ‘즐거운 한국사여행’이란 주제의 한국사 강의를 전문강사로부터 듣는 시간이었는데,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도 반가웠지만 엄마들 자신도 한국사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독서회의 여러 활동상과 회원들의 글을 모아 조그만 회지도 만들고 있는데 지난해 말 두 번째 회지를 발간했습니다.

#### **Q. 독서회가 앞으로 하고자하는 계획이 있다면 알려주시죠.**

**A.** <잎싹독서회>는 날마다 커가는 우리 아이들처럼 책을 통해 내 자아를 키우고 아이들의 마음을 읽으며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해온 활동을 토대로 앞으로도 자녀의 독서교육에 대한 고민들을 엄마들과 함께 나누며 독서교육에 대한 나름의 노하우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 엄마들의 자아도 성장시키며 아이들과 소통하는 독서회로 자리매김했으면 합니다. 더불어 관심 있는 엄마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책읽기 습관이 잘 들여진 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익히기 위한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이 높다고 한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할 줄 알기에 진로 선택과 그것을 향한 노력을 더욱 잘 해나갈 수 있는 것이다. 아이들의 독서습관을 기르는 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는 바로 부모이다. <잎싹독서회>는 바로 엄마들이 독서모임을 통해 책을 읽는 환경을 만들고, 그 환경을 각자의 가정 속에서 만들어 가고 있는 점에서 더욱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앞으로도 이러한 독서모임이 더욱 활성화되어 더욱 많은 이들이 좋은 책과 접하고 아이들과 소통하는 부모가 늘어나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 3백년 상상의 기운을 품은 마당, 논산 아이들의 상상이 역사를 만나 논산의 창공을 날아오르다

글 · 노상미 기자

## ◆ 보물을 찾아가는 길 ◆

논산 <상상마당>-명재고택-중학당-딸기마을-항공학교<창공교회>

### 논산<상상마당>에서 오백년 코끼리 만나다.

자, 우리는 잠시 2013년의 활주로를 벗어나 타임머신으로 갈아탔다. 6백년 전, 봄의 기운을 한 모금 입 안 가득 머금고 숨을 고른 다음, 인적 드문 흙길을 이렇게 누비고 있다. '흥미라고는 눈곱만큼도 없을법한 논길도 1월은 참 고요했구나.' 그런데 이 황량한 시골마을에 비밀의 문이 있었으니, 바로 논산 <상상마당>이다. 커다란 인식의 동굴은 넓적한 바위로 딱 닫혀져 있었다. 어제 내린 늦겨울비가 밤새 흙길을 축여놓은 터라 발이 푹푹 빠진다. 아이들은 신발에 묻은 흙을 털어내려 탁탁 소리를 낸다. 그러자 바위 문은 스르르 열리고 커다란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 한 마리가 우릴 보고 웃고 있었다. 어느새 이야기 속 험악한 상상의 도적들은 사라지고 어린왕자의 아름다웠던 별에서 꿈틀거리던 상냥한 보아뱀이 지그시 우릴 반겨준다.



상상마당은 예술적 상상을 키우고  
세상을 만나고 함께 나누며 행복해지는 곳

### 창의적 근력을 키우는 문화예술의 장, KT&G상상마당

코끼리는 1421년 세종 3년에 충청도에도 산 적이 있었다. 왜나라 국왕이 선물로 보내 왔던 그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이 2011년 6월, 노성산 아래 또아리를 틀었다. 한천리 아이들의 배움터로 30년을 이어왔던 한천폐교의 자리에 홍대에 이어 'KT&G 논산 상상마당'이 새꿈터로 펼쳐진 것이다. 시골냄새 폴폴 풍기는 아담한 시골학교였지만, 새 옷으로 디자인된 복합문화공간은 문화예술체험의 창의로운 발상의 지경을 넓히기에 충분히 다채로웠다.

올해 시행될 새 대통령의 체험중심 교육정책에 안성맞춤식 공간인 셈이다.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소통하며 다양한 창작활동을 펼칠 수 있는 <상상마당>논산의 문화사업은 교



육분야에서부터 공연, 디자인, 영화, 시각예술까지 아우르고 있다. 특히, 참여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새로운 시각적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공간의 벽지에서부터 기존의 환경들을 매칭시켜 매우 인상적이었다. 최근 소규모의 테마형 수학여행에도 제격인 이 공간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화체험을 창의적으로 즐길 수 있는 행복한 문화예술복합공간이다.

### ‘아름다운 고가’ 골독에 장이 익는 앞마당, 윤증선생 고택

송시열과 윤증과의 관계를 미루어 짐작하기에 도움이 될 만한 사자성어가 있다. 송시열이 살았던 회덕(懷德, 지금의 대전시 대덕구 일대)과 윤증이 거주했던 이성(尼城, 지금 충남 논산시 일대)에서 따온 명칭에서 나온 ‘회니시비(懷尼是非)’. 예학(禮學)을 중시했다던 사대부가 선비가 왜 시비가 있었는지는 여러 이견들이 있지만, ‘대인 관계의 바람직함(禮)’을 공부한 선비여서 오늘날의 후손들에게도 널리 인정받고 있을게다. ‘아름다운 고가’로 선정이 되었던 이 한옥의 특징은 낮은 골독과 소박한 공간이다. 맨 처음으로 눈에 들어오는 풍경은 네모난 연못 풍경이다. 연못 바로 곁에는 석간수의 우물이 있는데 물맛이 아주 좋은 탓에 장맛도 일품이다. 그래서 펼쳐진 사랑채 옆, 넓은 장

독대는 장관을 이룬다. 바람 길도 잘 트였고 별도 층만하여 깊은 장맛이 우러나기 알맞은 장소임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겠다. 특히 양반 덕의 위상을 상징하는 튼튼한 화강암 축대는 윤증의 높은 자존심을 상징하는 듯 우뚝 솟은 것이 인상적이었다. 이러한 사랑채를 보면 이웃 접근성을 품격있게 극대화 시켰고, 반면 안이 보이지 않게 배치한 안채를 보면 독립적 공간임을 명시하는 듯 보인다. 하지만 충분히 넓은 마당과 담장 밖의 우물은 마을 사람들을 배려한 인심이었음을 알 수 있겠다.

### 아이의 멘토가 되라.(명재 윤증 종가의 가르침)



윤증 선생은 조선 숙종 때 학자였으며 소론의 영수(領袖)였다. 노론(송시열)과의 치열한 당쟁으로 권력에 혐오를 느낀 그는 벼슬을 마다하고 고향인 논산 일대에서 후학 양성에만 힘쓴 선비이다. 이런 뜻을 담아 명재고택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종학당>을 세우고, 파평 윤씨 문중의 특별교육센터를 운영

하며 일생을 보냈다. 이곳에서는 윤증의 뜻을 담아 ‘윤증식 단계별 영재프로젝트’가 행해졌으며 수많은 인재를 배출한 역량있는 사설교육기관임에 틀림이 없었다.

한 장소에서 대과(문과) 급제자가 42명이나 배출되었다는 것은 전례에 없던 일이며, 한일합병 후 신교육이 도입된 이후로도 일제에 의해 강제로 폐쇄되기 전까지도 교육이 이루어졌던 곳이기도 하다. 최근에도 전통문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종학당>에 모여 옛 선비들의 기운을 따라 ‘정수루’에 모여 예학을 향유하며 ‘작은 선비’체험을 한다. “내가 죽은 후에 선비의 예절로써 장사지내고 명정에는 내 관직을 쓰지말고 작은 선비라 쓰라” 유언을 남긴 명재 윤증의 맑은 정신이 새 봄의 아지랑이가 되어 영원히 피어오르리라.

### “딸기 아줌마, 딸기마을에 배꽃이 왜 피어요?”

논산은 전체가 딸기촌이다. 12월부터 시작하여 5월까지 딸기가 익어가며, 봄이면 우유 빛 배꽃이 한창이어서 봄기운을 만끽하기에 좋은 먹거리와 볼거리가 있는 곳이다. 친환경농법을 선호하면서 딸기마을답게 딸기체험(딸기밭에서 직접 딸기를 따 먹는 체험)



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 첫 테마여행 코스에서 아이들이 가장 기대했던 체험이기도 했다. 좋아하는 과일 목록에서 ‘딸기’가 으뜸을 차지하는 나에게도 딸기마을은 너무도 신나는 경험이 아닐 수 없었다. 아이들 사진을 찍어준다는 핑계를 걸고서 나는 거침없이 딸기밭으로 들어갔다. 겹겹이 쌓인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보니 내 허리춤 높이의 선반 위에서 붉은 딸기들이 생글생글 반짝이고 있었다. 안내해주는 선생님을 따라 아이들이 찬찬히 딸기를 관찰하는 사이 나는 주먹만한 딸기를 골라 연신 먹어댔다. 한 줄을 돌아 다시 방향을 바꾸어 처음의 자리까지 왔을 때, 이미 나의 배는 황소개구리가 되어 있었다. 깔깔거리던 아이들의 소리에 하얀 딸기 꽃들도 즐거워 향긋한 소리로 답례를 하는 듯 했다. 볼록해진 배를 움켜쥐고 체험장으로 돌아오니 구수한 딸기 인절미를 권하시는 ‘딸기 아줌마’, 거절하지 않고 또 쫄깃한 인절미를 먹었다. 아이들은 이어 딸기비누를 만드느라 더 신이 났다. 한참을 딸기와 교감하는 사이 시간이 훌쩍 지나고 우리는 마지막 목적지인 항공학교로 향하였다.

### 아이들의 상상이 역사를 만나 논산의 창공을 날아오른다.

항공학교는 2013년 첫 테마여행의 손님(유진이와 엄마)을 위한 특별 이벤트로 선별한 장소이기도 하다. ‘상상마당’에서 교촌마을의 앞마당을 지나 노성산성 산자락을 돌아 돌아 딸기마당에 앉았다가 창공마당에 드디어 도착! 거무스레한 얼굴빛을 한 멋진 파



일렛 한 분이 탑승하여 항공학교 안을 찬찬히 안내해 주신다. 내비게이션 안에서도 찾아내지 못한 육군항공학교, 그 안 깊숙한 곳에 창공교회가 다소곳이 서 있다. 군에 위치한 교회 중에서 가장 예쁜 예배실을 가지고 있다며 자랑삼아 구경시켜 주시는 지인을 보면서 함께 있던 사람들은 한바탕 편안해짐을 확인한다. 마침 붉은 1월의 노을이 병풍처럼 우리를 둘러싸주니 기념 한 컷으로 따뜻하게 마무리를 했다. 유진이의 손을 꼭 잡고 번져가는 노을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도 이렇게 평안했으리라.

공중에 해가 떠 있었던 긴긴 하룻 동안, 일행은 노성산 아래를 꼼꼼히도 둘러보며 윤중고택과 버금가는 많은 고택들은 볼 수 있었는데, 논산은 ‘선비 마을’과 ‘학자 도시’라는 수식어가 어울릴만한 역사지역임은 분명하다. 여기를 방문할 때는 꼭 자녀와 함께 여행하기를 적극 권장하고 싶다. 만약 내 아이가 학문에 깊은 뜻을 품기를 바라는 부모라면 말이다.

**KT&G논산(상상마당)** 충청남도 논산시 상월면 한천리 68-7번지(도로명: 충청남도 논산시 상월면 한천리 15-20)  
T. 041.734.6986(09:30~08:30) [www.sangsangmadang.com/nonsan](http://www.sangsangmadang.com/nonsan)

**명재고택**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교촌리 306번지 교촌마을 파명 윤씨 종가  
T. 041.735.1215 <http://www.myeongjae.com> (문화해설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딸기 아줌마**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사월리 439-1  
T. 070.7757.0494 <http://azoom.co.kr>

| 중부 그루터기 | 포토 에세이



1958

20여 명의 성도들이 사가(私家)에서  
첫 예배를 드립니다.

1963

은행동에서 첫 삽을 듭니다.

1980

가양동에서 첫 삽을 듭니다.

1990

첫 해외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2013

첫 무엇이 시작 될까요?

사진 위 은행동에 새로운 예배당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공예배를 드리고 첫 삽을 들었습니다.

사진 아래 가양동 야산, 지금의 자리에 은행동 예배당을 이전할 기공예배를 드렸습니다.

| 중부 그루터기 | 나의 삶, 나의 신앙

# 길가의 돌맹이를 보석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

글 · 최영일 장로

나의 삶을 말하려면 가난을 이야기해야 만 한다. 전북 김제에서 태어난 나의 집은 매우 가난했다. 이러한 가난 가운데서도 아버님은 솔로 생활을 했고, 가게는 어머니의 억척같은 생활로 가능할 수 있었다. 어머니는 이웃집을 전전하시며 여러 가지 일을 해주시고 받은 품삯으로 어렵게 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었다. 11남매를 낳으셨지만 다섯 남매만이 제대로 살아서 생명을 이어갔다. 지금 생각해도 어렵고 힘든 나날이었다. 나도 어려서는 죽을 고비를 두 번 넘긴 적이 있다. 옛날 시골에는 길가에 인분구덩이가 있었는데 우리 동네의 큰 구덩이에 잘못하여 빠졌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 친구가 잘못 휘두른 곡괭이에 허리를 찍혀 큰 위험에 처했지만 하나님은 기어코 당신을 만나 신앙의 삶으로 나를 인도하시려고 살려 주셨다.



1964년 외사촌 누님이신 오말례 권사(남편 고 윤석병 장로)의 권유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 외사촌 누님은 나의 삶에서 신앙을 일깨워 주시고 평생 주님과 함께한 삶을 열어 주신 분이시다. 만약 나에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생활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가난과 무지 속에서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그 때 만난 예수님은 내 삶의 희망이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밑바탕이 되었다.

나는 누님과 매부의 권유로 대전으로 나왔다. 매부의 집에서 점원으로 일하면서 옷장사를 했다. 신앙 생활을 하게 된 나는 장사를 하면서도 바가지를 씌우거나 손님을 억울하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이때 나의 삶에 평생 동반자가 되어 준 신협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신우신협을 출범시킬 때 참여하여 창립회원이 되었고, 이러한 인연으로 23년간 신협에서 직원부터 시작하여 전무로 퇴직할 때까지 일하게 되었다. 신협은 내가 살아가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 준 반석 같은 존재가 되었다. 지난 해 신협 이사로 출마할 당시 내가 내건 구호는 '정직'이었다. 거짓말과 가식을 싫어 한 나는 오랜 신협 생활은 물론 신앙인으로서 '정직'을 좌우명 같이 여기며 살아왔다.



우리 집안은 장수하며 사는 것과는 인연이 없었다. 아버님은 49세에 위암으로 세상을 뜨셨고, 지금은 11남매 중에서 84세인 누님과 나 둘만이 남았다. 이러한 것을 마음에 두고 가혼 겸 유혼을 정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직한 마음을 갖고 살자, 생각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되자, 만족하면서 살아가자”라는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것으로 진정 감사한 것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주일학교에서 제자였던 사위는 현재 강도사로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재물과 권력의 명문은 이루지 못하였지만 신앙의 명문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한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는가?

가난이라면 한이 맺힐 정도로 나를 힘들게 했지만, 지금은 부채도 없고, 살아갈 수 있는 집도 있다. 머리 둘 곳도 없으시던 예수님에 비하면 나의 생활은 분에 넘치는 것이다. 아내인 순정숙 권사를 고생시킨 것이 늘 마음에 아픔이다. 너무 착하고 신앙으로 가정을 내조한 순 권사는 내 삶에서 빛나는 보석과 같은 존재이다.

70여 년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 50년, 나의 가장 큰 기쁨은 주일학교 교사로 46년 간을 봉직한 것이다. 교회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직책도 맡았고 앞장서서 일도 했지만 주일학교 교사로 봉직한 생활보다 더 큰 자부심과 기쁨을 준 것은 없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평생 학교도 변변히 다니지 못한 나는 가나안 농군 학교를 수료하고, 두레교회 김진홍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3, 4년간 들으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갔다. 또한 뒤늦게나마 대전신학교에서 신학공부를 했다. 너무 어렵고 힘든 생활에 동생들을 업어서 키우며 학교와는 인연이 멀던 나는 하나님을 만나서 이러한 공부를 하고 학생들을 평생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했으니, 하나님의 세우심과 축복은 참으로 놀랍고 감격스럽다.



나는 우리 교회의 고 윤석병 장로님과 이인창 장로님을 멘토로 여기며 신앙생활을 해 왔다. 지금도 내가 보기에는 너무 훌륭하고 귀감이 되는 분들이시다. 모든 생활을 교회에 우선하시고 사시는 모습은 내 삶의 방향을 이끌어 주신 감사한 분들이시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 많은 윤석병, 이인창이 나오기를 하나님께 기도한다. 얼마전 나는 시무 장로에서 은퇴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님들의 축복으로 원로장로가 되었다. 이인창 장로님은 은퇴식 때에 40년 전 장로장립식 때 입으셨던 양복을 입고 나오셨는데, 나도 은퇴식에서 31년 전 장로장립 때 입은 양복을 입고 나왔다. 처음 마음을 되새겨 보고, 앞으로 원로장로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되새겨 보았다.

이제는 원로장로로 교회의 일에 직접 나서서 일하지는 않지만 더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주의 일을 맡겨 주옵소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베데스다의 지치고 힘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일할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다.

# 영생을 상속하라

## 마19:29

글 · 정연진 사모(홍대훈 전도사, 초등부 담당)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중부교회와 함께 지낸 시간이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희 가정을 사랑해주시고 섬겨주신 성도님들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사역하느라 사모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함이 제 마음 한 구석에 미안함과 아쉬움이 있는 저에게 ‘함께’지에 소식을 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

다. 한편으로는 부담도 되었지만 성도님들과 교통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라는 생각에 설레었습니다.

무엇을 나누어야 되나? 고민하는 가운데 제가 양육과 사역을 함께 병행하여 가장 힘든 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힘을 주시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서 성도님들과 그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기란 솔직히 힘이 듭니다. 반면 인내와 헌신이 없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인내하며, 절제하며, 헌신하라고 말씀하셨나 봅니다.

저 또한 사역자이지만 이제 8개월 된 아이를 양육하면서 사역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것저것 신경을 쓰며, 산후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사역을 포기하기로 생각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기도 했지만 양육 또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쉬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주님은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청년 이야기를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그 부자청년은 재물과 권력 등 모든 것을 가졌지만 영생에 대한 물음표를 갖고 있었기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재물을 버리지 못하고 영생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자 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마19 : 28~29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아무리 세상의 지식과 재물로 자녀를 양육하여도 그 영혼에게 영생이 없으면 무슨 소용인가?”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마음을 다해 고백했습니다.

“주님! 주님은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오 그 영혼을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나의 육체적, 정신적 연약함으로 스스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포기하려 했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가정과 사역을 허락하신 주님, 주님의 지혜와 방법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정과 사역에 주인 되어 주셔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 뿐만이 아닌 많은 분들도 여러 가지 고민과 갈

등에 힘들어 하시고, 또한 주님의 사역을 포기

하려고 고민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주

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위

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상속

해주며, 우리가 포기했다고 생각하

는 것들을 여러 배로 채워 주신다

는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

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성도님

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

망합니다.



## 새로 오신 교역자를 소개합니다



심태선 목사  
1교구

전라도 고창이 고향이신 심태선 목사님은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와 총신대학교 MDV, 총신대학교 일반대학원 TH-M 과정을 마치고 졸업 서울에서 목회활동을 하시다가 이번에 처음 대전에 오게 되었다. 가족은 김선희 사모님과 1남(진규) 2녀(지선, 진아)가 있다. 목사님은 우리교회에서 느낀 첫인상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담임목사님의 헌신적인 사랑’과, ‘교회 내부의 멋진 리모델링이 성도들 내면세계까지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을 꼽으셨다. 그 무엇보다 가정 행복을 중히 여기는 목사님은 가정 행복의 본이 바로 ‘사랑’임을 믿기에, 그 ‘사랑’을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삼아 열심히 사역하고자 하신다.



이석원 목사  
3교구

새로 부임하신 이석원 목사님은 총신대학교와 총신대 신대원을 졸업하고 서울에서 목회를 시작하고 고향인 대구의 대구드림교회에서 목회활동을 하다 이번에 대전에 오시게 되었다. 가족으로 성약을 전공한 이진영 사모와 5살 난 딸(하은)이 있다. “조상용 담임목사님을 처음 만나 뵈고 존경하게 되었다!”고 첫인상을 밝히는 목사님은 대전중부교회가 참으로 따뜻한 어머니의 품처럼 느껴졌다고 고백한다. 또한 함께 동역하는 교역자들의 분위기가 참으로 편안하고, 반겨주는 성도들이 고맙기 그지없다고 말한다. 목사님은 앞으로 3교구를 담당하시며 제자훈련, 목요전도대, 2030을 함께 섬기게 될 것이다.



**김명순 전도사**  
2교구

김명순 전도사님은 충북 오창이 고향이지만 오래 생활해온 대전을 제2의 고향으로 여기며, 현재 남편 류호환 집사(성광감리교회)와 2남 1녀(은혜, 은빛, 영대)의 자녀를 둔 가정을 이루고 있다. 전도사님은 여러 해 전 경제적, 육체적으로 힘들던 때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 처음 시작할 때 있던 두려움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사 41:10)는 말씀으로 이겨내며, 지금까지 헌신해온 사역이 어느덧 8년째이다. 전도사님은 마가복음 12장 33절에서 주신 말씀대로 ‘마음과 지혜와 힘을 다하여 하나님과 이웃과 교구와 성도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사역’을 소망하고 있으시다.



**김선환 전도사**  
유년부

김선환 전도사님은 출근 서울에서 생활하다 남편(임바울, 대전동부교회 전도사)을 만나 대전에 오게 되었다. 그동안 개척교회부터 시작하여 중대형 교회까지 다양한 교회 사역을 경험하였고 한국어린이 전도협회 본부에서 사역하며 훈련과 현장 사역을 병행했다. 아울러 홍콩단기 선교사로 파송되어 만 2년간 사역하기도 했다. 전도사님은 앞으로의 사역 가운데 ‘중부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사역을 감당할 힘도 주시리라 믿으며, 유년부 어린이들이 하나님 주신 꿈을 갖도록, 그리고 그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중부교회와의 만남을 주선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다.



## 2013년 국.부장 수련회

새해를 맞아 우리 교회의 모든 부서 국.부장이 참석하는 수련회가 2월 1일과 2일 서구 장태산 기도원에서 열렸다. 이번 수련회에는 안산동산교회 미래목회연구소 박원호 장로님과

팀을 강사로 모시고 조직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기법인 워크아웃에 대해서 집중적인 훈련을 받았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가?’하는 문제를 국.부장이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 것을 기반으로 깊이 있고 분석적인 워크아웃을 진행했다. 이번 수련회는 사역의 동반자인 교역자 전원과 국.부장이 고민을 함께한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다.



## 동대전 노회 부흥성회

‘미자립교회 지원금 마련을 위한 연합부흥성회’가 지난 2월 24일부터 27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었다. 동대전노회가 주관하여 진행된 이번 연합부흥성회는 노회 안에 있는 미자립 교회들을 돕기 위해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연합부흥성회의 강사는 일본 오사카 유니온 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계신 이병호 목사님이였다. 목사님은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는 주제로 새벽과 오전과 오후 모든 집회에 강사로 나와, 성회 기간 내내 열정적으로 말씀을 선포하셨다. 이번 성



회에는 우리 교회 성도는 물론, 동대전노회에 속한 여러 교회의 성도들도 함께해, 많은 이들이 은혜의 시간을 가짐과 동시에 미자립교회를 위한 기도와 실천의 첫걸음을 옮길 수 있었다.



## 2013 상반기 장학금 수여식

우리 교회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이웃과의 나눔을 실천하기 위하여 우리 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들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지난 3월 3일 오후예배 시간에 '상반기 장학금 수여식'이 장학사업부 주관으로 우리 교회 본당에서 진행되었다. 장학금 대상자는 중등부(중학생) 5명, 고등부(고등학생) 5명, 청년부(대학생) 7명과 교육전도사 2명으로 총 19명이었다. 또한 우리 교회 안수집사회에서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장학금 사업이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되어 더 많은 학생들에게 힘이 되어주길 기대한다.



## 평신도 훈련 진급 및 수료식

지난 3월 3일 오후예배 시간에 '평신도 훈련 진급 및 수료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를 통해 지난해 제자반 과정을 마친 22명은 사역반 3기로 진급하였고, 사역 훈련 2기 과정을 마친 15명은 사역 훈련 수료를 하게 되었다. 또한 가정사역학교 과정을 마친 7명의 수료식도 함께 진행되었다. 수료식에 참석한 수료자들은 '성도를 제자 삼는 교회' 사명을 실천하는 일원으로서 지난 1년 동안 평신도 훈련에 적극 참여하여 이날의 기쁜 자리에 설 수 있었다. 앞으로도 많은 교우들이 평신도 훈련에 참여하여 더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양육되길 기대해 본다.

**사역반 3기 진급자(22명)** 유창웅, 김영환, 김종현, 이신순, 인치경, 임인성, 최진수, 고경진, 국은희, 김미영, 김성욱, 김영숙, 김영희, 김옥진, 도미숙, 박지숙, 서성순, 이상경, 이안심, 이인자, 정정이, 한인숙

**사역반 2기 수료자(15명)** 김상희, 안중근, 위성수, 윤원용, 이영학, 정찬호, 김정식, 류순례, 박순자, 오계숙, 윤미경, 이명옥, 이은영, 최정숙a, 최종숙

**가정사역학교 수료자(7명)** 김동선, 윤정옥, 이인숙, 주정화, 최옥선, 최은애, 박경민

## 큰숲어린이집 보건복지부 <우수 어린이집 평가 인증> 선정



우리 교회 큰숲어린이집(원장 주경애)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선정하는 ‘우수 어린이집 평가인증’에서 좋은 점수로 우수 인증을 받았다.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교육과정, 안전 및 영양관리, 수업참관 등을 통해서 엄격하게 시행되는 우수인증은 3년간 유효하며 관

련 부서로부터 여러 가지 지원을 받게 된다. 큰숲어린이집은 6개월 전에 원아 모집이 끝나고 대기자가 30여명이 될 정도로 지역사회로부터 많은 신뢰를 얻고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5명의 교사가 4개 반, 40명의 영유아에게 나이에 맞게 구성된 교육과정을 통하여 전문적인 보육을 담당하고 있다.

## 2013년 평신도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 개강

### ▶ 제 3기 사역훈련 / 제 4기 제자훈련

기간 : 3월 5일부터 1년 과정

시간 : 낮반 오전 10시 저녁반 오후 8시

장소 : 당회실(사역훈련), 소예배실(제자훈련)



### ▶ 가정사역학교 제 2기 3학기

주제 : 그리스도인의 인간이해와 상담

기간 : 3월 5일부터 5월 29일까지 13주간

장소 : 교육관 미션홀

### ▶ LMTC(평신도선교훈련)

기간 : 3월 7일부터 1년 2학기

장소 : 교육관 비전홀

### ▶ 청춘대학

기간 : 3월 14일부터 4년 과정

대상 : 만 65세 이상 남녀

### ▶ 8기 야기학교

기간 : 3월 14일부터 12주 과정

대상 : 생후 12~36개월

##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민우네



민우(7세,유치부)는 유치부에서 성격이 좋아 모든 일에 적극적이며, 친구들에게도 인기가 많다. 또한 선생님들은 민우를 인사성 좋은 잘 생긴 아이라고 부른다.

장래 희망이 건축가인 민우는 그림 그리는 것 보다 만들기를 좋아한다.

아빠 조관희(예수전도단. 오류목장)집사와  
엄마 정수진(예수전도단. 오류목장)집사는 월평동에서 실용음악 아이빅 학원을 함께 운영하면서, 예수전도단에서 베이스와 피아노로 섬기고 실용음악학원과 외부선교단체 활동을 한다. 그러다 보니 민우가 할아버지 댁(조성길 집사. 윤정순 집사)과 외가에서 보내는 시간은 많고, 부모와 지내는 시간이 적어 안정적인 생활과 환경을 위한 기도제목이 있다. 그래도 할머니 윤정순 집사님께서 손자인 민우를 잘 돌보아 주셔서 아빠와 엄마는 항상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이 가득하다. 민우는 믿음의 든든한 가정에서 태어나 섬김을 배우며 자라가고 있다. 이러한 가정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어두운 세상에 별같이 빛을 발하는 가정으로 인도하시는 큰 뜻을 볼 수 있다.





엄마 한영춘은 우리 교회 늘푸른청년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였으며, 지금은  
아빠 김진혁, 딸 김사랑(7개월)과 함께  
바울성결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모 교회를 찾아 커피와 함께  
'함께'지를 읽는 모습이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엄마와 아기가 '함께'를 읽습니다.  
세대는 달라도 '함께'는 하나입니다.  
'함께'는 세대 뿐 만 아니라 지역도 뛰어 넘습니다.

세련되거나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지는 않지만,  
나와 이웃이 나누어 읽을 수 있는  
“이웃과 교회가 하나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웃과 교회가 하나 되는 이야기”  
'함께'지가 가는 길입니다.

 대전중부교회 042-622-9991 [www.jungbu.or.kr](http://www.jungbu.or.kr)

\* 본지를 읽고 가져가셔도 됩니다.